

독일 GERMANY



독일 집권당 이끄는 카렌바우어, 여성정책 방향은?

채혜원 독일 통신원

▶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뒤를 이어 독일 기독교민주당(CDU)을 이끄는 새 대표로 아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Annegret Kramp-Karrenbauer) 당 사무총장이 당선됐다.

▶ 올해로 56세인 카렌바우어는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자를란트 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이 지역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로마 가톨릭 교회 신자다. 18세에 기독교민주당 당원이 된 카렌바우어 대표는 청년 단체와 지역 당원들과 일하면서 오랜 시간 자를란트 주에서 입지를 넓혀왔다. 그는 자를란트 주에서 2000년 독일의 첫 번째 여성 주정부 내무 장관이 되었고, 2011년에는 첫 여성 주지사가 되었다. 2017년 주지사에 재선에 성공한 후 카렌바우어는 자를란트 주에서 봉사하는 것이 만족스럽다며 국가 차원으로 올라갈 의향이 있음을 부인했지만, 독일에서는 이미 메르켈의 잠재적인 후계자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 큰 주정부 선거를 통해 그는 메르켈 총리의 눈을 사로잡았고, 결국 2018년 2월 기독교민주당의 사무총장이 되었다. 카렌바우어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는 남편 헬무트 카렌바우어로 알려져 있다. 광산 엔지니어로 일하던 그는 카렌바우어 대표가 정치 일을 시작하자 집에서 세 아이를 키우며 카렌바우어 대표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카렌바우어 대표는 메르켈 총리와 개인적, 정치적으로 가깝고 신임을 받아왔기 때문에 독일 언론에 의해 '미니 메르켈(mini Merkel)'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더 보수적인 정책으로 메르켈 총리와 차별화된다. 독일 언론들은 카렌바우어와 메르켈을 비교하면서 카렌바우어 대표가 법과 질서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어느 정도 메르켈 총리와 비슷한 노선을 추구할 것이라 분석했다. 예를 들어 이주정책의 경우, 카렌바우어 대표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EU 내 일방적인 국경 폐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는 전당대회에서 "우리는 보수나 진보가 아닙니다. 기독교민주당은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참고자료

- <https://www.tagesschau.de/inland/abtreibungen-werbeverbot-koalition-101.html>
- <https://www.dw.com/en/angela-merkels-cdu-successor-annegret-kramp-karrenbauer/a-46622513>
- <https://www.sol.de/news/update/News-Update,229990/Kramp-Karrenbauer-Werbung-fuer-Abtreibung-soll-verboten-bleiben,229993>
- <https://www.dw.com/en/merkel-ally-annegret-kramp-karrenbauer-urges-new-era-in-german-politics/a-46196445>

그렇다면 여성 정책과 관련해서 카렌바우어 대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일각에서는 그가 보수주의자이지만 그간 여성 사회진출 이슈나 기업 여성 대표 할당제 실시 등에 참여해온 만큼 여성 정책을 잘 이끌어갈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해 CDU(기독민주당)/CSU(기독사회당)연합은 여성들이 직접 선거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 개혁안을 준비 중이다.

쟁점은 ‘낙태 광고 금지 조항’이다. 카렌바우어 대표는 낙태 이슈와 관련해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현재 독일 의회에서는 낙태 광고를 금지하는 독일 형법 제 219a조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여기서 ‘광고’^{Werbung}란 단어는 일반적인 ‘광고’의 의미가 아니라 의사가 낙태 과정, 가능성과 위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논쟁은 독일 기센^{Gießen}의 지방법원이 산부인과 의사인 크리스티나 헤넬^{Kristina Hänel}에게 6000유로 벌금형 판결을 확정하면서 촉발되었다. 헤넬 의사는 홈페이지에 낙태에 대한 정보를 올렸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 등은 219a조에 대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카렌바우어 대표는 자란트 주지사직을 맡고 있을 때부터 “낙태는 사후 피임이 아니며 다른 의료 서비스와 다르다.”며 조항 폐지에 엄격히 반대해왔다. 이에 녹색당은 “여성 정치가 구식 정치로부터 나오고 있다.”며 “219a조는 나치 시대의 유물이며 이 조항은 여성이 낙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의사 업무를 범죄로 만들고 있다.”며 비판했다.

공영방송 뉴스 ‘타게스샤우’^{Tagesschau}의 12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중으로 기독교 민주·사회 연합(CDU/CSU와 SPD)는 다른 당과 타협점을 찾을 계획이나 합의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카렌바우어 대표는 ‘타게스샤우’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좋은 교류를 하고 있지만 아직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지만 219a조항은 삭제되어서는 안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온건한 보수주의자’라 불리는 카렌바우어 대표가 여성정책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나갈지 독일 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폭행·협박 수반 여부를 중시한 스페인 법원의 최근 성범죄 관련 판결, 그리고 여성대상 폭력 반대 시위

곽 서 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유엔(UN)이 지정한 여성대상 폭력 근절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인 지난 11월 25일,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는 여성대상 폭력 철폐를 주장하기 위해 수천 명이 운집한 대형 시위가 개최되었다. 마드리드뿐만 아니라 스페인 내 다른 주요 도시들에서도 이와 같은 시위가 개최되었다. 본 시위는 거리행진에 이어 지난 1년간 이전 또는 당시 현재 배우자에게 살인을 당한 44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명단을 읽어내려 가는 것으로 끝났다.

2003년부터 스페인은 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인원과 정보를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2018년까지 총 999명의 여성(972명 성인, 27명 아동)이 사망했다고 한다. 그리고 헌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스페인 법관들의 활동을 규율하는 기구인 사법위원회(General Council of the Judiciary, 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에 따르면, 스페인 법원에는 2017년 한해에만 16만 6천 건 이상의 젠더기반 폭력에 관한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2016년 142,893건에 비해 대비 약 16% 가량이 상승한 수치이며 스페인 사법당국에서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 2017년 기준 총 166,620건의 젠더기반 폭력 사건 중 여성이 피해자였던 경우는 158,217건에 이르렀으며, 그 중 48,110건은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다. 2017년 사건의 약 69% 가량은 피해여성이 직접 법원에 소송을 걸거나 경찰을 통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위의 열기가 뜨거웠던 데는 사실 이를 전인 11월 23일, 스페인 법원의 판결도 한 몫 했을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북동부 카탈루냐주에 위치한 예이다(Leida) 법원에서 한 술집에서 만난 일반 여성을 뒷골목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남성 2명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것이다. 중범죄로 처벌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은 "위협을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두 남성의 행위가 강간은 아니다"라고 보았다. 또한 판결문에서 "여성은 술과 항우울제 복용으로 인해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고, 이는 가해자들이 폭력과 같은 압력을 굳이 가할 필요가 없게 만들었으며 가해자들은 여성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것이다"라고 명시했다. 이와 같은 판결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스페인 시민 수천 명이 법원의 판결 내용에 격분했다. 여성 피해자가 멈춰달라고 애원하고 반대 의사 표시를 분명히 했음에도 신체적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고, 여성 피해자의 상태를 언급하며 귀책사유를 돌리는 것과 같은 판결에 수많은 시민들이 분노한 것이다. 그리고 스페인 여성단체들은 유엔의 여성대상폭력 근절의 날을 기념하는 것 뿐 만 아니라 본 판결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자 대규모 시위를 기획한 것이다.

더불어 올해 4월, 스페인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다. 팜플로나(Pamplona) 법원에서 5명의 남성이 지난 2016년 한 페스티벌에서 18세 여성을 끌고 가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에 대해 9년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는 스페인에서 법으로 명시한 집단 강간 처벌에 비해 가벼운 수준이었는데, 스페인 현재 형법(Penal Code)상에서는 가해자가 칼로 협박하거나 신체 부위를 때리는 폭행을 가했다는 증거가 있을 때만 강간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영상 속 피해 여성이 수동적인 듯 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피의자들이 폭력 및 압력을 행사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참고자료

-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2018), "More efficient means needed to achieve pay equality," 2018년 10월 16일자 https://stm.fi/en/artikkeli/-/asset_publisher/palkkatasa-arvon-saavuttaminen-vaatii-tehokkaampia-keinoja (접속일자: 2018년 11월 23일)
- BBC(2018), "Spain rape law: Outcry as court rules attack not violent," 2018년 11월 23일자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46315969> (접속일자: 2018년 12월 7일)
- El Pais(2018), "Las 166.620 denuncias por violencia machista de 2017, la cifra más alta desde que hay registros," 2018년 3월 12일자, https://elpais.com/politica/2018/03/12/actualidad/1520845944_225662.html(접속일자: 2018년 12월 7일)
- The Guardian(2018), "Thousands march in Spain to oppose violence against women," 2018년 11월 25일자,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nov/25/spain-protest-march-oppose-violence-against-women>(접속일자: 2018년 12월 7일)
- The Local(2018), "Spanish court sticks to nine-year sentence for 'Wolf Pack' sexual abusers," 2018년 12월 5일자, <https://www.thelocal.es/20181205/spanish-court-sticks-to-controversial-nine-year>(접속일자: 2018년 12월 7일)

본 판결 이후 스페인 곳곳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게다가 6월에는 법원에서 보석을 허용하여 피의자들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사실이 알려지자 시위가 몇 차례 더 일어났다. 이후 7월, 스페인 정부는 향후 형법을 일부 개정하여 강간 인정 및 처벌을 보다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12월 5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피의자들은 원심과 동일한 9년형을 선고받았고, 오히려 한 피의자의 변호사는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올해 스페인에서 여성대상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수 많은 시위가 열리고 시민들이 여성대상 성폭행 사건과 판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만큼, 앞으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하고 폭력 예방 및 처벌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국 UNITED KINGDOM



영국의 대표 소년 합창단, 혼합 합창단으로 바꾸라는 주장 거세

황수영 브리스톨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과정

성평등을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영국 대표 소년 합창단인 케임브리지 킹스 칼리지 합창단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영국의 유명 오페라 가수인 레슬리 가렛이 킹스 칼리지 합창단을 직접 언급하며 “여성 단원을 받지 않는 남성 합창단은 말도 안 되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면서, 킹스 칼리지 합창단을 혼합 합창단으로 바꿔 남녀 모두가 동등하게 음악적 기량을 발휘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영국 대성당 합창단 문화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케임브리지 킹스 칼리지 합창단은 영국을 대표하는 소년 합창단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 킹스 칼리지에서 매년 크리스마스이브마다 캐럴 축제(A Festival of Nine Lessons and Carols)를 개최했고, 올해로 100회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영국 공영방송 BBC를 통해 영국 전역에 중계된다. 킹스 칼리지 합창단은 7~13세 사이의 소년 16명으로 구성되며, 이 합창단에 소녀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합창단 창단 이래 유례가 없었던 일이다.

소년만 참여하는 이 합창단의 캐럴 축제에 문제를 제기한 이는 바로 영국의 유명 오페라 가수 레슬리 가렛이다. 가렛은 12월 5일 영국 매체 라디오 타임스(Radio Times)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합창단에서 소녀를 배제하는 것은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발상(complete anachronism)이며 과거로 회귀하는 것(throwback to a bygone age)”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소녀들도 소년들만큼 기량이 뛰어나다. 전문가들조차 합창할 때 소녀와 소년의 목소리를 따로 구분하지 못하기도 한다”면서 “소년의 목소리에만 절대적 순수성이 있다고 믿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소년으로만 구성된 합창단의 모순을 꼬집었다.

참고자료

- Welch and Howard(2002)“Gendered Voice in the Cathedral Choir”, https://www.researchgate.net/profile/David_Howard7/publication/33042353_Gendered_Voice_in_the_Cathedral_Choir/links/0deec52d0dd5831e24000000/Gendered-Voice-in-the-Cathedral-Choir.pdf (접속일자 2018년 12월 14일)
- The Guardian(2018)“Top boys’ choir embraces a new carol amid the changing times”, 2018년 12월 9일자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18/dec/09/kings-college-choir-master-leaving-100th-christmas-concert> (접속일자 2018년 12월 14일)
- The Guardian(2018)“Lesley Garrett says King’s College Choir must accept girls”, 2018년 12월 6일자 <https://www.theguardian.com/music/2018/dec/06/lesley-garrett-says-kings-college-choir-must-accept-girls> (접속일자 2018년 12월 14일)

📌 킹스 칼리지 합창단은 여학생에게도 합창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적이 있다. 20년 전 구성된 킹스 보이스^{King's Voices}는 혼합 합창단으로 교회 공연에 여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킹스 칼리지 합창단을 대표하는 공연인 크리스마스 캐럴 축제에 여학생이 참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킹스 칼리지의 소년 합창단은 성차별이라기보다 전통이라는 시각 때문이다.

📌 소년 합창단의 전통과 성평등이라는 가치가 상충하자 과거 영국에서는 남학생 위주의 대성당 합창단의 여학생 참여에 대해 연구가 이뤄진 바 있다. 그레이엄 웰치 박사와 데이비드 하워드 교수는 2002년 공동 집필한 '대성당 합창단의 성별화된 음성'^{Gendered Voice in the Cathedral Choir}라는 논문을 통해 10세 이하 아동의 목소리는 해부학 및 생리학적 관점에서 봐도 본격적인 사춘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남녀 간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논문은 잘 훈련된 합창 단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소년인지 소녀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별 경계가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국 대성당 합창단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남녀를 분리해 합창단을 운영한다"면서 "그러나 10세 아동들은 성별과 상관없이 비슷한 음색을 갖고 있다"고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년 합창단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런던 바흐 합창단^{The Bach Choir}의 데이비드 힐 음악 감독 12월 9일 영국 언론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남성 합창단을 없애는 것은 소년 합창단이 주는 독특한 음색과 영국이 존경받아온 어떤 문화를 제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혼합 합창단 운영에 반대했다.

- Radio Times(2018) "Lesley Garrett: Girls should be allowed to sing at King's College Carols", 2018년 12월 5일자
<https://www.radiotimes.com/news/2018-12-05/lesley-garrett-girls-should-be-allowed-to-sing-at-kings-college-carols/#3z-addoor>
(접속일자 2018년 12월 14일)



- 출처 :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18/dec/09/kings-college-choirmaster-leaving-100th-christmas-concert> (접속일자: 2018년 12월 14일)



캐나다 정부, 일상 속 젠더폭력 근절 위한 캠페인 진행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 캐나다에서 매년 12월 초는 젠더폭력이라는 주제가 집중 조명되는 시기이다. 11월 25일 UN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의 날^{UN Day for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을 시작으로 ‘16일간의 젠더폭력에 대항하는 운동^{The 16 Days of Activism against Gender-Based Violence}’ 캠페인을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International Human Rights Day}까지 펼친다. 매년 이 16일의 기간을 통해 정부는 1989년 몬트리올의 여성혐오 범죄의 비극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캐나다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젠더폭력^{gender-based violence}에 고통 받고 있음을 환기하며, 최근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LGBTQ2^{Lesbian, Gay, Transgender, Transsexual, Queer, Questioning and Two spirit} 커뮤니티 성소수자들, 캐나다 원주민 여성, 장애인 여성과 같은 다양한 그룹들을 젠더폭력에 특히 취약하게 하는 구조적 위험요인들을 밝히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캐나다 정부는 16일간의 캠페인의 슬로건을 #MYActionsMatter로 제시하고 미투운동을 계기로 일상 속의 젠더 폭력의 실상에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2018년 캠페인은 젠더 폭력에 맞서는 연대에 참여하기 위해 다섯 가지 중 한 가지의 행동을 취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데, 그 다섯 가지 행동은 첫째, 타인의 경험을 듣는 것에 열린 자세를 취할 것^{Listen}, 둘째, 젠더 폭력의 피해자들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낼 것^{Believe}, 셋째, 젠더 폭력을 폭력이라고 외치는 목소리에 동참할 것^{Speak out}, 넷째, 젠더 폭력을 목격했을 때 안전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Intervene}, 그리고 다섯째, 개개인이 자신이 속한 기관이 젠더 폭력에 대해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앞장설 것^{Act}이다. 또한 올해 캐나다 정부는 여성부 주도로 모든 사람은 폭력으로 부터 해방된 삶을 살 권리가 있으며 젠더폭력에 대항하는 행동을 취할 것을 맹세한다는 내용의 전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트윗, 예컨대 “피해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 맞서고 젠더폭력에 대항한다” 등의 메시지와 포스터(아래 이미지 참조)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 전국민이 #MYActionsMatter 해시태그를 통해 소셜미디어로 캠페인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정부는 또한 몬트리올 사건¹⁾에 희생된 열네 명의 여성을 기억하는 의미로 열 네 송이의 하얀 장미와 한 송이의 장미를 직장 로비에 진열하거나 흰 장미 모양의 브로치를 착용할 것을 장려했고 학교에서 젠더 폭력 교육에 쓸 수 있는 통계자료, 토론 주제들과 역사 교육 자료 등을 여성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1) 캐나다 역사상 최악의 여성혐오 범죄로 기록된 사건으로, 1989년 당시 졸업에 실패하고 직장에서도 해고당한 25세 청년 마크 르팽^{Marc Lépine}이 총과 사냥용 칼로 무장한 채 몬트리올 기술대학의 한 강의실에 있던 여학생과 남학생을 분리해 세운 뒤 자신은 페미니즘에 맞서 싸운다며 “위험한 페미니스트”들의 몇몇 이름을 호명한 뒤 14명의 여학생들을 모두 죽이고 같은 빌딩 안의 여성들만을 쫓아가서 총 24명의 여성에게 총격을 가한 뒤 자살한 사건임. 마크 르팽은 유서에서 페미니즘이 자신의 인생을 망쳤으며 페미니즘은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해 캐나다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바 있음.

참고자료

- The Globe and Mail, Ontario high-school incident highlights dress code tensions in the age of #MeToo,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ontario-high-school-incident-highlights-dress-code-tensions-in-the-age/>
- 이미지 출처: <https://swc-cfc.gc.ca/commemoration/vaw-vff/media-en.html>
- Status of Women Canada, The 16 Days of Activism against Gender-Based Violence <https://swc-cfc.gc.ca/commemoration/vaw-vff/index-en.html>
- Status of Women Canada, Message from the Minister, <https://www.swc-cfc.gc.ca/violence/strategy-strategie/report-rapport2018-en.html>

IT'S NOT *JUST*
TURNING A BLIND EYE.

**IT'S FAILING
TO INTERVENE.**

#MYACTIONSMATTER



Status of Women
Canada

Condition féminine
Canada

Canada

IT'S NOT *JUST*
SHARING A PHOTO.
IT'S CYBERVIOLENCE.

#MYACTIONSMATTER



Status of Women
Canada

Condition féminine
Canada

Canada

IT'S NOT *JUST*
NAME-CALLING.
IT'S DISCRIMINATION.

#MYACTIONSMATTER



Status of Women
Canada

Condition féminine
Canada

Canada



캐나다의 화이트 리본 데이와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캐나다에서 화이트 리본 데이(White Ribbon Day)라고 불리는 12월 6일은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날 National Day of Remembrance and Action on Violence Against Women로, 캐나다 역사상 최악의 여성 혐오 범죄로 기록되는 1989년 몬트리올 기술대학(Ecole Polytechnique de Montréal) 사건에서 희생된 14명의 여성을 기리기 위해 1991년 캐나다 연방 의회가 국경일로 지정한 날이다. 이 사건은 당시 졸업에 실패하고 직장에서도 해고당한 25세 청년 마크 르팽(Marc Lépine)이 총과 사냥용 칼로 무장한 채 몬트리올 기술대학의 한 강의실로 들어가 강의실에 있던 여학생과 남학생을 분리해 세운 뒤 자신은 페미니즘에 맞서 싸운다며 “위험한 페미니스트”들의 몇몇 이름을 호명한 후 14명의 여학생들을 모두 죽이고 같은 빌딩 안의 여성들만을 쫓아가서 총 24명의 여성에게 총격을 가한 뒤 자살한 사건이다. 마크 르팽은 유서에서 페미니즘이 자신의 인생을 망쳤으며 페미니즘은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해 캐나다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바 있다.

올해 캐나다에서 화이트 리본 데이에 즈음하여 공개한 관련 보고서(Canadian Domestic Homicide Prevention Initiative)는 젠더폭력 해결에 있어 여성혐오 범죄라는 단일한 프레임으로 접근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구엘프 대학(Universitry of Gueph)과 웨스턴 대학(Western University)을 중심으로 구성된 리서치 네트워크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캐나다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살인 사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476건의 사례 중 76%의 희생자가 여성이며 특히 캐나다 원주민, 이민자와 난민, 산간벽지에 사는 사람, 아동 네 그룹이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희생자의 53%를 차지해 특별히 가정폭력 살인사건에 취약한 집단으로 밝혀졌다. 보고서는 젠더폭력에서 개인적인 이유 보다는 각각의 그룹이 속하는 독특한 사회경제적 맥락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캐나다의 외진 농어촌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 전체의 22%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데, 도시 지역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에서 칼을 이용한 경우가 가장 빈번한 반면 시골에서는 총기가 가장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가 총기규제를 위한 예산을 대도시 위주로만 편성하고 있는 것은 젠더 관점에서 예산 편성을 제고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이주민의 경우 언어 장벽과 그들의 문화에 맞는 지역사회의 지원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고립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비원주민에 비해 두 배 가량 가정폭력으로 살해 빈도가 높은 집단인 원주민 여성의 경우에도 사회경제적 조건과 제도적 인종주의를 폭력 피해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편 올해 12월 캐나다 여성부(Status of Women Canada)에서 내놓은 공식 성명은 젠더폭력이 캐나다 사회에 여전히 만연함을 경고하면서도 캐나다 정부가 2016년 젠더폭력에 맞서는 최초의 연방 정부 차원의 전략적 정책 패키지 개발(GBV strategy)을 천명한 이후로 일궈낸 성과를 조명하고 있다. 2017년 연방정부는 GBV 전략 부문에 5년간 1억 9백만 캐나다 달러(약 92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크게 세 부문으로 젠더폭력(GBV, Gender Based Violence) 전략을 구성하였는데, 방지(prevention),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support for survivors and their families), 그리고 합당한 사법 제도 및 형벌 제도 촉진(promotion of responsive justice and legal systems)이 그것이다.

참고자료

- The Globe and Mail, Ontario high-school incident highlights dress code tensions in the age of #MeToo,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ontario-high-school-incident-highlights-dress-code-tensions-in-the-age/>
- Status of Women Canada, Message from the Minister, <https://www.swc-cfc.gc.ca/violence/strategy-strategie/report-rapport2018-en.html>
- Status of Women Canada, 2017-2018 A Year in Review: Canada's Strategy to Prevent and Address Gender-Based Violence, <https://www.swc-cfc.gc.ca/violence/strategy-strategie/report-rapport2018-en.pdf>
- CBC, What is the Philadelphia Model?, <https://www.cbc.ca/news/canada/kitchener-waterloo/unfounded-sex-assaults-waterloo-task-force-carol-tracy-philadelphia-1.4080309>
- National Inquiry into Missing and Murdered Indigenous Women and Girls, <http://www.mmiwg-ffada.ca/mandate/>
- The Global and Mail, Bill C-75 is justice reform that makes sense, <https://www.theglobeandmail.com/opinion/article-bill-c-75-is-justice-reform-that-makes-sense/>

구체적으로 2017-2018년 GBV 전략의 성과를 보고한 캐나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GBV 전략의 첫 번째 촉진 방지 영역에서는 젠더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운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17년 캐나다 여성부는 캐나다 미식축구 리그와 협력, 11월 25일 UN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의 날 UN Day for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에 시작,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 International Human Rights Day까지 펼쳐지는 '16일간의 젠더폭력에 대항하는 운동 The 16 Days of Activism against Gender-Based Violence' 캠페인을 시작하였으며, 캐나다 이민청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는 이민자 정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NGO들과 지역 커뮤니티들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GBV에 관한 내용을 포함 하도록 재정 지원을 시작하였다.

GBV 전략 패키지의 두 번째 촉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 support for survivors and their families에 관한 대표적인 성과로서 캐나다 정부는 그동안 실종 내지 살해된 캐나다 원주민 여성들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진상규명 프로젝트 The National Inquiry into Missing and Murdered Indigenous Women and Girls를 시작, 진상 규명 위원회를 주축으로 캐나다 각지에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그간 1,484건의 사건 기록을 희생자 여성과 그들의 가족으로 부터 수집하였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성범죄의 특성상 범죄를 수사하는 데 있어 수사기관 외에 지역사회와 전문가들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이른바 필라델피아 모델 Philadelphia Model을 받아들여 성범죄의 경우 외부 전문가가 사례를 리뷰하고 수사에 협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의 큰 틀을 정했으며, 캐나다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는 기존의 성범죄 피해자 쉼터에서도 필라델피아 모델을 적극 수용하도록 추가적인 예산을 지정하였다.

GBV 전략의 마지막 촉진 합당한 사법 제도 및 형벌 제도 촉진 promotion of responsive justice and legal systems 부문에서도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2017년 6월 캐나다 인권법 Canadian Human Rights Act에서 지정하는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는 항목에 젠더 정체성 Gender Identity를 추가하도록 하는 법령 Bill C-16이 도입되었으며, 이로써 젠더 정체성 때문에 개인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은 캐나다 형법에서 증오 범죄 hate crime로 규율할 수 있게 되었다. 올 1월에는 형법을 개정하여 Bill C-75, 가정폭력(정확히는 intimate-partner violence) 사건에서 가해자가 재범 일 경우 보석으로 풀려나는 것을 제한하고 형량 또한 강화했다. 또한 2017년 하반기에 캐나다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성희롱 사건이 미투 운동의 여파를 타고 공론화 되자 정부는 공무원들을 성희롱으로 부터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 Bill C-65하기 위해 작년과 올해에 걸쳐 형법을 개정하여 연방정부 소속의 기관들로 하여금 성희롱 규율 내부 규정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고 몇 번이나 이 규정이 쓰였는지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캐나다 여성부는 그간 정부가 페미니스트 실천과 풀뿌리 운동 grassroots activism and feminist action에 기반한 젠더폭력 정책 방향을 일궈온 것을 자축하면서, 앞으로 연방 정부는 85백만 캐나다 달러 (약 718억 5천만원)를 추가로 투입하여 GBV 정책을 확장, 청소년 데이트 폭력 방지와 온라인상의 괴롭힘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